

번역가, 반역자 (Traduttore, traditore)

마엘벨렉, 파리시립아시아박물관 세르누치박물관 중국·한국 컬렉션 수석 학예연구사

(프랑스어 번역: 김린아 lyнна.g.kim@gmail.com)

* « »: 연작명 / <>: 작품명

이수경(1963년 출생)은 작품 활동 전반에 걸쳐 영상 메이킹을 하고, 회화와 조각을 창작하고, 설치를 구상하고, 퍼포먼스도 기획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작가의 유명세를 특히나 키운 것은 도자기 작업이다. 여러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연작들이 작가의 작품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번역된 도자기»는 그가 수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연작이기도 하다. 세계 미술시장에서 소개되고,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미술관에서 소장되는 등, 이 연작에 대한 수요가 이러한 작가의 선택을 쉽게 방증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상업적 성공과 평론계의 인정만으로는 본인의 내적 취향이 너무나도 확고한 조형예술가로서 그러한 노고를 감수한다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수경의 작품세계에서 이 창작물이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와 기호학적 풍부함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자칫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다채로운 창작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번역된 도자기» 연작의 기원은 2001년 제1회 알비솔라 비엔날레에 참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는 시인 김상옥(1920-2004)이 쓴 한국의 백자를 찬미한 시의 번역본을 그 지역 도공에게 들려주고, 이 텍스트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도자기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12점의 도자기는 연작의 미적 동질성을 부여하는 코발트 블루와 철 갈색 채색 장식이 돋보이는 결과물로, 언뜻 보기에는 강한 유기성을 보인다. 하지만, 채색된 문양은 아시아 도자 공예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장식과 옛 한국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티프 혹은 서구식 고정관념에 기반한 오리엔탈리즘이 투영된 근대적 도상들이 혼합된 모습을 보인다. 출처를 특정할 수 없는 이 뒤얽힌 조합은 기껏해야 아시아 도자 역사의 희미한 발자취를 상기시키는 듯한 실루엣과 중국 도자기에서 직접 파생된 형태 사이를 오간다. 작가가 도공에게 주문하는 방식의 창작 과정은 결과물의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한다. 12점 도자기의 예술적 지위는 사실 작품의 퀄리티나 완성도에 있다가보다는 이수경이 채택한 개념적 방식에 있다.

그의 작품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이러니는 작품에 대한 의아함을 더 증폭시키는데, 좌대 한쪽에는 조선시대(1392-1910) 국보가 알비솔라에서 재해석 되었음을, 다른 한편에는 상품화된 도자기들이 재고 처분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여기서 재해석은 사실 번역을 의미하는데, 작가는 영어로 '번역된 (Translated)'을 붙여 2001년 설치작에는 <번역된 도자기 알비솔라 (Translated Vases Albisola)>, 이듬해 시작하게 된 연작에는 «번역된 도자기 (Translated Vase)»라는 타이틀을 부여한다. 그렇지만, 이 두 작품의 차이는 구체화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개념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전(前)작은 아이디어의 형상화에, 후(後)작은 미적 감정에 기반한다. 알비솔라 비엔날레 이후 한국 도자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수경은 도자명장 임향택(1947-2019)의 작업실을 찾아가게 된다. 그는 명장이 결점이 있다고 판단한 도자기를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보았고, 태양 아래 빛을 내는 깨진 조각들에 그대로 매료되어 그 파편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명장에게 부탁한다. 그 후 작가는 무의식적으로 파편들을 만지작거리며 서로가 맞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깨닫기까지 몇 달이나 지나고서야 2002년 비로소 여러 개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4년이 지나고 다시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작의 첫 번째 과정은 고미술품점이나 도자 장인의 작업장에서 도자 파편들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다음 예폭시 접착제로 파편들을 붙인다. 필요한 경우, 특히 규모가 큰 작품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철골 지지대를 사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음새에 금박을 입힌다.

2001년 설치 작품에서 이수경은 순수한 개념미술의 프로토콜을 따랐지만, 그 후에는 지금의 번역된 도자기 시리즈 탄생을 암시하는 형태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미리 계획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없이 많은 시도 속에서 좌절을 맛본 작가는 하나의 조각이 다음 조각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라가며 조금씩 진행하는 방향으로 접근법을 달리하게 된다. 작가가 직접 모양과 색상에 따라 분류한 버려진 도자 파편들을 조심스레 선별해가며 자율적인 흐름에 따라 작품의 형태를 잡아가면서도 증식하는 형태는 대체로 규칙적이다. 아래층은 작품의 발판이 되고, 색상은 조화롭게 구성되면서도 윤곽의 변주를 강조하듯 구별된다. 거의 명상에 가까운 느리고 반복적인 작가의 작업 방식은 «불꽃»이라는 회화 연작을 비롯한 여러 작품의 근간이 된다. 이수경은 손으로 하는 작업으로 정신과 신체를 연결하고자 한다. 작가는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속도와

효율성에 반하는 긴 과정 속에 작품을 완성해 가며 이 모순적인 진화를 이어나간다. 계속해서 파편들의 완전한 결합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현존하는 개념이나 물음을 무시하고 파편과 파편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그를 이끌었을 것이다.

이수경의 작품 대다수가 그러하겠지만, «번역된 도자기» 연작에 대한 해석은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 즉, 이미 이 연작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겠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혹은 완성된 후에도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이수경의 창작 언어는 관계 논리의 핵심을 강조하는 우주론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가 폐기되거나 깨진 도자 조각을 작품 소재로 선택한 이유는 훼손되었거나 일회적인 것들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이나 사물의 연약함에 연민을 느끼는 이수경에게 고의로든 우연히든 도자기가 깨진다는 것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위험과 기능적 측면 사이의 긴장에서 오는 불편한 굴레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도자기의 해방을 의미하고, 작가에게는 이러한 파괴가 낳은 파편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새로운 네러티브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도자 조각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빚댄 해석에는 이수경이 일부러 파편들 사이의 접합부를 강조한 이유 즉, 깨어짐에 시선을 집중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축복하는 데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연약함에 대한 찬사가 결코 균열과 연결선의 의미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한국어로 ‘균열(fissure)’과 ‘금속(or)’을 의미하는 금이 가진 언어적 특성(동음이의어: homophonie)을 고려해 금박을 사용하여 칠해진 선들은 전통 가마에서 새롭게 재탄생한 도자기와 옛 도자기의 파편을 서로이어준다. 이는 파편들 속에 담긴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연결을 의미하며, 현대성이 더해진 하나의 조각으로 형상화된다. «번역된 도자기» 연작은 이수경이 그동안 다루었던 수많은 주제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통에 과도하리만큼 애정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수경의 퍼포먼스 작품 <태양의 궤도를 따라서>에서는 전통에 대한 눈먼 사랑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바로크 형식을 빌려 표현하기도 했다. 작가는 많은 작품에서 역사 이야기에 의문을 갖고 모든 난제, 공백 그리고 왜곡을 되묻는다. 서로 다른 시대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현대 미술품으로 만드는 작업은 사실 작가가 독재 시절 철저히 가려졌던 잊혀진 역사를 상기시키거나 한때 교리와도 같았던 대한민국의 단일 문화에 대한 논쟁을 일깨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작업 방식은 또한 이수경이 옛 오브제에 속박된 고정된 시간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사실 작가에게는 전통에 대한 보존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알비솔라 설치작품에 붙여졌던 ‘번역’ 타이틀을 «번역된 도자기» 연작에서 그대로 차용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탈리아 도공이 그러했듯, 옛 미술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을 전혀 다른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이수경. 때로는 지나친 사랑, 때로는 조소 섞인 시선과 거리를 유지하며 작가는 필연적으로 과거를 배반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신은 새로운 형태로 역사를 지속하게 하기에, 우리는 그를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역사는 곧 지나간 세상 속에 고정된 이미지가 될지라도...